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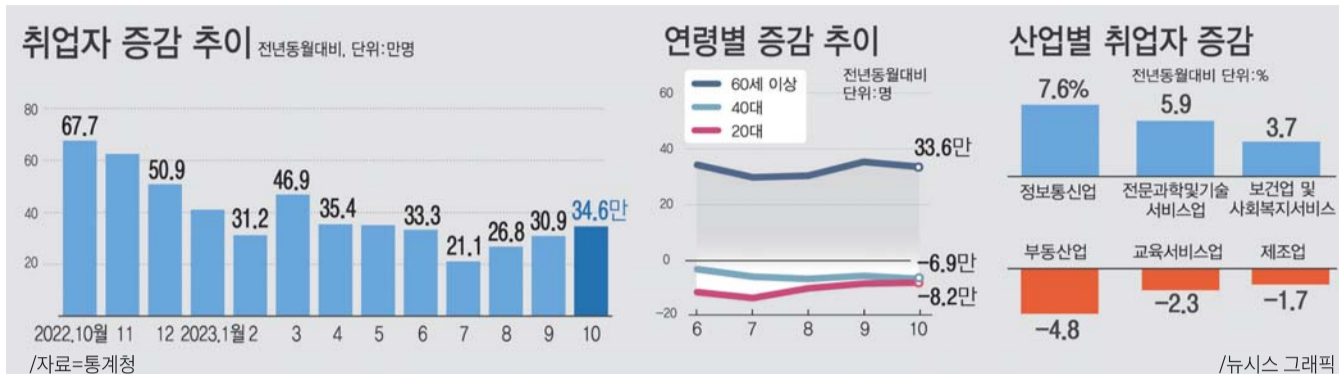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 34.6만명 늘었지만... 20대·40대는 감소세

통계청, 총 취업자수 2876.4만명
60대 이상에서 33.6만명 늘어나
20~59세 1.6만명 소폭증가 그쳐

지난달 60세이상 연령대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50대에서는 도합 오히려 4.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와 50대에서 늘었으나 20대와 40대가 1년 이상 지속된 고용 위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이상 취업자수는 287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4만6000명(1.2%) 증가했다. 증가폭이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등 3개월째 커졌다.

그러나 나이대별 고용은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났다. 취업자는 60세이상에서 1년 전보다 33만6000명 늘어났다. 그러



나 20~59세 연령층에서는 1만6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20대(7만6000명↓)와 40대(6만9000명↓)에서 합계 14만5000명 쪼그라들었다.

특히 업무능력이 정점을 향하는 40대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1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수치(8만2000명↓) 또한 12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남성은 주로

고용 위축이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 분야에 분포돼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부분도 40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0대와 50대에서 각각 11만명, 5만1000명 늘어나 20~40대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 이로써 20대와 30·40·50대 취업자 수는 총 1만6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15~19세까지 포함하면 15~59세 증가폭은 1만명에 그친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7%),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5.9%), 정보통신업(7.6%) 등에서 증가했다. 1~10월 평균치 역시 정보통신업이 5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만명 늘었다. 두 분야 모두 32개월째 취업자 수가 오른세다. 도매 및 소매업도 1만1000명 늘며 5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대면 문화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경기 변동 등

으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가 전환이 구조변화가 안정 단계에 왔기 때문인지, 경기 변동으로 증가한 건지는 이번 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제조업 취업자는 1.7%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와 의류 분야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과 기계, 금속에서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만4000명, 임시근로자는 6만8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숙박·음식점업 분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달 車 누적수출 580억 弗... 33.9% 급증

산업부, 지난해 연간실적 돌파
1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올해 10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 연간 실적을 돌파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경차와 프리미엄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증가가 수출 규모를 키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출실적인 54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5월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출 목표 570억달러 역시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다. 올해 10월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고인 59억달러다. 수출 대수로 보면 22만5420대로 전년동월 대비 8.6% 상승했다.

특히,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등 전기차와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SUV), 프리미엄 차량 수

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차를 포함해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7.9% 증가한 5만6793대,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21.4% 증가한 17억5000만달러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는 2021년 차량 1대당 2만달러에서 2022년 2만1000달러, 올해 1월~10월까지 2만3000달러로 올랐다.

10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을 보면, 트레일블레이저가 17만6123대로 1위를 차지했고, 코나(17만1494대), 아반떼(16만9541대), 트렉스(13만7700대), 니로(12만1009대), 투싼(11만8090대), 스포티지(11만2274대), 모닝(10만5056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지역별 자동차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35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6.9% 상승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자동차 생산은 3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9% 상승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

1% 감소한 14만100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79% 성장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11만6000대, 수입차는 2만4400대 팔렸다.

10월까지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그랜저가 9만6672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쏘렌토(6만8379대), 카니발(5만8695대), 스포티지(5만8028대), 아반떼(5만4394대)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오는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완성차 업계에서는 최대 17%의 최대규모 할인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내수 차량 판매 진척이 기대된다.

향후 국내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울산·화성 등 신규 전기차 공장 투자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사의 생산시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대구(전기차 모델), 광주(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원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전기차 부문 통상이슈 적극 대응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한파대비 전력수급 점검 회의

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 공유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력당국과 전력 유관기관들이 올겨울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옥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관리 준비를 위한 종합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3년 12월 4일 ~ 2024년 2월 29일)에 앞서 올겨울 전력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올겨울 전력당국의 수급 관리는 녹

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 발생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옥현 전력정책관은 "갑작스러운 한파, 폭설로 인한 태양광 발전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작년보다 많은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과장,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석케미칼 등 10개 기업 '노사문화대상'

고용부,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가 15일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 등 10개 기업을 '2023년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 2021~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93개 기업 중 22개 기업이 신청했

다. 고용부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노사문화 사례발표 등을 개최해 대통령상 2곳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2곳, 장관상 6곳을 선정했다.

대통령상은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수상했다. 또 국무총리상은 신성델타테크와 서진오토모티브,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코미코, 나은요양병원, 롯데면세점제주, 푸드머스, 군포도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수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다.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 및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노사 간 협력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노사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단체교섭 시 기본급 동결로 임단협 조기 타결, 2022년 임금 무교섭 타결을 통해 위기를 타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60개 공공기관서 혁신중소 지원 나서

도로공사·기재부, 기술마켓 워크숍

한국도로공사와 기획재정부는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60개 공공기관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 제품을 심사·구매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참여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발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으로 묶어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마켓'의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시설과 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현제 기자 hjkoo@